통합치료연구 제4권 1호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2012. Vol. 4 No. 1. 5-23

장애아동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장애아동 양육에 미치는 영향

김유미*
김숙자 언어 · 인지 클리닉

본 연구는 장애 아동 어머니들의 초기 대상관계가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장애아동 양육의 긍정적인 부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서울, 경기도, 인천에 소재한 특수학교, 복지관, 치료교육기관에 다니는 1-13세의 뇌병변, 지적장애, 발달장애의 1,2,3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아동의 어머니 17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초기 대상관계에 따라서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비 장애 어머니와의 초기 대상관계가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장애 아동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는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 어머니는 자신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을 알고 어려서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을 토대로 현재 자신의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을 재검토 한다면, 장애 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장애아동의 양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 장애, 초기 대상관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 교신저자 : E-mail: kimyumi2000@hanmail.net
■ 게재 신청일 : 2012년 4월 23일 ■ 최종 수정일 : 2012년 5월 4일 ■ 게재 확정일 : 2012년 5월 15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Ⅰ. 서 론

Stern(1995)은 부모와 아동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과거에 경험했던 풍부한 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관계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유아에게 대하는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성장배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생 초기에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 양육자에 대해 가지는 근접적인 성향이나 정서적 유대가 심리 속에 내면화 되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양육자에 대한 이미지 또는 상인 대상관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전경희, 2004).

초기 대상관계와 양육태도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초기 대상관계가 인정과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경우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를 가지고, 양육태도 중 자율적인 태도와, 거부적인 태도, 통제적인 태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진다고 하였다(박경희, 2004). 또한 박수정(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초기 양육자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경우 유아에 대한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통제, 무시, 공격, 방임, 비난, 과보호를 받았을 경우 유아에 대해 통제적,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은 자율적인 양육태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 초기 대상관계가 영향을 미치나 장애아동 부모의 초기 대상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장애아동의 양육은 일반적인 도전과 책임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심리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는 부가적인 어려움을 더하게 된다(반순주, 2003).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부모들의 적응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만든다. 부모는 자녀가 장애라는 것을 발견하면 전형적으로 충격, 거부, 슬픔, 죄책감, 부인(부정), 장애의 수용, 바람의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적응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아동을 수용하여 현실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모들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며 가정불화를 야기하거나 자녀를 과보호하여 자녀의 성장발달에 기회를 주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이애현, 1996). 이렇게 장애자녀의 양육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차경화(2008)는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통제적, 자율적, 거부적 태도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연임(2002)은 장애 자녀 부모 집단과 비 장애부모집단의 양육태도를 조사한 결과 장애 자녀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 장애 자녀 부모보다 덜 애정적, 거부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하나는 양육효능감을 들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자녀 양육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을 무엇이라 정의하는가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Dorsey와 그의 동료들(1999)은 양육 효능감을 아동 발달과 관련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Gross와 Rocissano(1988)는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 및 훈육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 등을 포함한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최형성, 2002)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육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양육 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통제적이고 강압적이며 체벌적인 양육 행동을 보여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다고 한다(Teti & Gelfand, 1991).

이렇듯 비장애아 부모의 양육 효능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그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일반 아동 어머니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가족탄력성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손재익, 2010),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높게 나타나 장애 아동 어머니의 삶의 질,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수경,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초기 대상관계가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예상하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초기 대상관계의 유형을 파악하여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장애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과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부모의 장애 문제에 대한 대처행동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장애아와 양육자에 관련된 부모교육, 사회적 도움 또는 실천적 서비스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인천에 소재한 특수학교, 복지관, 치료교육기관에 다니는 1-13세, 뇌병변, 지적장애, 발달장애의 장애등급 1,2,3급을 가진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배부된 질문지는 190부이고 이중 회수된 질문지는 171부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장애 및 장애 등급이 맞지 않는 설문지와 무응답 및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질문지 60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111부였다.

2. 연구도구

가.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Benjamin(1974, 1996)의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SASB)의 분류기준을 기초로 해서 김창대(1997)에 의해 조사 된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김사훈(1998)이 제작한 것으로 전경희(2004)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Benjamin(1974, 1996)의 사회적 행동의 구조 분석 모형에서는 애착 대상인 양육자가 유아에게 반복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태도를 독립성과 우호관계의 축으로 구분하였으며(김사훈, 1998, 재인용), 이에 기초하여 전경희(2004)는 총 7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72개의 문항 중 10개의 문항은 안정형, 무시형, 공격형, 사랑형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며, 9개의 문항은 통제형, 방임형, 비난형, 5개의 문항은 과보호형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그렇다.'가 4점, '조금 그렇다.'가 3점, '조금 그렇지 않다.'가 2점,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모든 문항의 총점으로 초기 대상관계를 측정하게 된다. 전경희(2004)가 측정한 초기 대상관계 척도의 신뢰도는 .83이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척도의 신뢰도는 .86 이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나. 양육태도 척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검사도구는 이원영(1983)이 번안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도구 MBRI를 김숙현(2002)이 4개의 하위요인(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태도)으로 제한하여 총 47문항으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4개의 하위요인 중 3개의 하위요인은 (애정적, 자율적, 통제적)은 각 12문항이고, 1개의 하위요인(거부적)은 11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있다.

MBRI는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모형을 근거로 하여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관련 이론 뿐 아니라 이론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술하였고, Becker(1964), Mussen & Kagan(1969)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것이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 154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가지의 7가지의 요인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긍정적 평가태도, 어머니의 의존성)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김숙현(2002)이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84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양육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70이였다.

다.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신숙재(1997)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양육효능감은 일반적인 양육효능감 6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5문항, 의사소통 7문항, 학습지도 능력 4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으면 양육효능감이 높다. 신숙재(1997)의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8이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양육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87이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 까지였으며,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복지관 및 치료교육기관, 특수학교 관계자들에게 본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설정된 1) 배경변인 질문지와 2)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척도 3) 양육태도 척도 4) 양육효능감 척도를 함께 묶어서 1회 실시하여 회수하였다. 총 배부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질문지는 190부이고 이중 회수된 질문지는 171부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장애 및 장애등급이 맞지 않는 설문지와 무응답 및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질문지 60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111부였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장애 아동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19.0 version)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각 문항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장애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과 초기 대상관계 및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넷째, 초기 대상관계 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다섯 째,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가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장애아동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과 초기 대상관계 유형,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가. 어머니 일반적인 특성과 초기 대상관계 유형,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 교육정도, 직업, 총수입, 아동의 장애에 따른 초기 대상관계유형,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초기 대상관계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26-30세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어머니의 평균 155.80(SD=7.04), 31-35세는 150.92(SD=13.70), 36-40세는 150.00(SD=13.94), 41세 이상은 151.31(13.04)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에는, 중졸 이하의 어머니의 평균은 147.66(SD=19.03), 고졸의 평균은 144(SD=22.14), 대졸이상의 평균은 141.70(SD=19.04)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전업주부의 평균은 142.82(SD=20.08), 회사원은 142.61(SD=28.02), 자영업은 147.20(SD=16.58), 기타직업은 146.71(SD=13.53)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 따라서는, 총수입이 100만원 미만의 어머니의 평균은 151.33(SD=8.80), 100-199만원은 141.10(SD=18.36), 200-299만원은 140.03(SD=19.32), 300만원 이상은 145.09(SD=22.5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에서는 26-30세의 평균은 155.80(SD=7.04), 31-35세는 150.92(SD=13.70), 36-40세는 150.00(SD=13.94), 41세 이상은 151.31(13.94)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중졸이하의 어머니의 평균은 138.66(SD=6.65), 고졸의 평균은 151.75(SD=12.23), 대졸 이상의 평균은 150.65(SD=12.34)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업주부의 평균은 151.08(SD=23.02), 회사원은 149.61(SD=9.80), 자영업은 154.00(SD=8.51), 기타직업은 148.14(SD=10.07)로 나타났다. 총수입을 살펴보면, 총수입 100만원 미만의 어머니의 평균은 143.66(SD=11.46), 100-199만원은 152.78(SD=10.01), 200-299만원은 151.84(SD=14.50), 300만원 이 상은 150.35(SD=11.57)로 나타났다. 아동의 장애 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뇌 병변 1급의 평균은 152.30(SD=13.52), 뇌 병변 2급은 153.50(SD=7.04), 뇌 병변 3급의은 139.50(SD=12.02)이였다. 발달장애 1급은 147.85(SD=9.26), 발달장애 2급은 149.73(SD=12.14), 발달장애 3급은 152.41(SD=11.57)이였고, 지적장애 1급은 평균 148.70(SD=10.81), 지적장애 2급은 150.11(SD=15.53), 지적장애 3급은 153.68(SD=11.6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양육 효능감을 살펴보면, 연령에서는 26-30세의 평균은 93.20(SD=14.04), 31-35세는 105.50(SD=15.28), 36-40세는 102.54(SD=12.59), 41세 이상은 103.21(12.61)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에서는 첫째인 어머니의 평균은 102.03(SD=12.34), 둘째는 101.06(SD=13.28), 셋째는 102.95(SD=14.08), 넷째는 103.41(SD=14.27)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중졸이하의 어머니의 평균은 86.66(SD=15.14), 고졸의 평균은 103.73(SD=93.50), 대졸이상의 평균은 103.36(SD=12.39)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의 평균은 103.74(SD=12.99), 회사원은 97.53(SD=10.21), 자영업은 100.60(SD=13.64), 기타직업은 4.71(SD=19.32)로 나타났다. 총수입을 살펴보면 은 100만원 미만의 어머니의 평균은 99.33(SD=20.11), 100-199만원은 102.00(SD=13.25), 200-299만원은 105.24(SD=13.75), 300만원 이 상은 100.92(SD=12.22)로 나타났다. 아동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뇌 병변 1급의 평균은 109.10(SD=19.51), 뇌 병변 2급의 평균은 99.75(SD=10.62), 뇌 병변 3급의 평균은 90.00(SD=4.24)이였다. 발달장애 1급은 99.42(SD=11.02), 발달장애 2급은 101.69(SD=11.42), 발달장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애 3급은 98.25(SD=11.54)였고, 지적장애 1급은 평균 103.50(SD=8.92), 지적장애 2급은 99.52(SD=9.55), 지적장애 3급은 103.37(SD=14.00)로 나타났다.

2. 초기 대상관계 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의 차이

가. 초기 대상관계 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에 따라서 양육태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초기 대상관계의 유형인 인정형, 통제형, 무시형, 공격형, 방임형, 비난형, 사랑형, 과보호형에 따른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인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초기 대상관계에 따라서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애정적인 태도(F=2.48, p< .05)와 거부적인 태도(F= .91, p< .001)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율적,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초기 대상관계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녀가 장애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 장애 자녀들보다 덜 자율적이고, 더 통제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특성이라고 보여진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 어머니 일반적인 특성과 초기 대상관계 유형, 양육태도, 양육효능감(N=111)

변인	구분	빈도	초기대상관계 M(SD)	양육태도 M(SD)	양육효능감 M(SD)
연령	26-30세	5	155.80(7.04)	155.80(7.04)	93.20(14.04)
	31-35세	26	150.92(13.70)	150.92(13.70)	102.50(15.28)
	36-40세	48	150.00(10.81)	150.00(10.81)	102.54(12.59)
	41세이상	32	151.31(13.94)	151.31(13.94)	103.21(12.61)
교육정도	중졸이하	3	147.66(19.03)	138.86(6.65)	86.66(15.14)
	고졸	53	144(22.14)	151.75(12.23)	102.09(13.80)
	대졸이상	55	141.70(19.04)	150.65(12.34)	103.36(12.39)
직업	전업주부	86	142.82(20.08)	151.08(13.02)	103.74(12.99)
	회사원	13	142.61(28.02)	149.61(9.80)	97.53(10.21)
	자영업	5	147.20(16.58)	148.14(10.07)	100.60(13.64)
	기타	7	146.71(13.53)	154.00(8.51)	94.71(19.23)
총수입	100만원미만	6	151.33(8.80)	143.66(11.46)	99.33(20.11)
	100-199만원	19	141.10(18.36)	152.78(10.01)	102.00(13.25)
	200-299만원	33	140.03(19.32)	151.84(14.50)	105.24(13.75)
	300만원이상	53	145.09(22.54)	150.35(11.57)	100.92(12.22)
자녀의 장애정도	뇌병변 1급	20		152.30(13.52)	109.10(19.51)
	뇌병변 2급	4		153.50(7.04)	99.75(10.62)
	뇌병변 3급	2		139.50(12.02)	90.00(4.24)
	발달장애 1급	7		147.85(9.26)	99.42(11.02)
	발달장애 2급	23		149.73(12.14)	101.69(11.42)
	발달장애 3급	12		152.41(11.57)	98.25(11.54)
	지적장애 1급	10		148.70(10.81)	103.50(8.92)
	지적장애 2급	17		150.11(15.53)	99.52(9.55)
	지적장애 3급	16		153.68(11.67)	103.37(14.00)

나. 초기 대상관계 유형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에 따라서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초기 대상관계의 유형인 인정형, 통제형, 무시형, 공격형, 방임형, 비난형, 사랑형, 과보호형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양육효능감은 일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훈육능력, 학습지도 능력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초기 대상관계에 따라서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훈육능력($F= .70$, $p< .05$)에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인 양육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학습지도능력은 초기 대상관계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장애 아동의 어머니가 장애 아동의 문제 행동 및 도덕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양육효능감의 능력보다 자신의 초기 대상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표 2〉 초기 대상 유형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N=111)

초기 대상관계 유형	빈도	양육태도			
		애정적 M(SD)	거부적 M(SD)	자율적 M(SD)	통제적 M(SD)
인정형	56	3.72(.42)	2.70(.53)	3.17(.43)	3.26(.39)
통제형	6	3.44(.45)	3.15(.70)	3.11(.37)	3.47(.29)
무시형	3	3.72(.05)	3.09(.66)	3.50(.17)	3.14(.25)
공격형	3	3.53(.24)	3.06(.34)	3.19(.60)	2.97(.55)
방임형	7	3.76(.33)	2.86(.51)	3.26(.59)	3.21(.29)
비난형	1	3.00(.)	2.73(.)	2.67(.)	3.00(.)
사랑형	25	3.84(.60)	2.46(.61)	3.11(.66)	3.18(.44)
과보호형	10	3.23(.37)	3.25(.44)	2.92(.22)	3.18(.59)
F		2.48*	.91**	.19	.10

* p< .05, ** p< .01

〈표3〉 초기 대상관계 유형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N=111)

초기 대상관계 유형	빈도	양육효능감				
		일반적인 양육효능감 M(SD)	건강하기 양육하는 능력 M(SD)	의사소통능력 M(SD)	훈육능력 M(SD)	학습지도능력 M(SD)
인정형	56	3.03(.52)	3.66(.67)	3.52(.60)	3.49(.47)	3.50(.73)
통제형	6	3.11(.51)	3.60(.13)	3.00(.43)	3.25(.35)	3.00(.59)
무시형	3	3.17(.17)	3.20(.35)	3.57(.14)	3.63(.13)	3.08(.63)
공격형	3	3.17(.17)	3.87(1.10)	3.76(.50)	3.25(.99)	3.2(25)
방임형	7	2.93(.35)	3.14(.67)	3.24(.52)	3.48(.28)	3.36(56)
비난형	1	2.17(.)	3.40(.)	3.14(.)	2.00(.)	2.25(.)
사랑형	25	3.28(.65)	3.81(.65)	3.70(.65)	3.65(.63)	3.57(.68)
과보호형	10	2.88(.67)	3.40(.82)	3.24(.50)	3.09(.50)	2.95(.71)
F		1.20	.55	.57	.70**	1.77

* p< .05, ** p< .0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 아동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기 대상관계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양육태도를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회귀분석 (N=111)

양육태도	예측변인	β	t	$\triangle R^2$	R^2	F
애정적	사랑형	.25	4.22	.13	.14	17.82***
	통제형	-.17	-.212	.16	.18	11.44*
거부적	비난형	.50	6.41	.27	.27	41.14***
	사랑형	-.22	-3.08	.33	.32	26.92**
	인정형	.31	2.49	.37	.35	20.89**

** $p<$ .01, *** $p<$ .001

<표 4>를 살펴보면, 초기 대상관계 유형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초기 대상관계 변인은 사랑형과 통제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이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 변량의 18%였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랑형으로 전체변량의 14%(β= .25, $p<$ .001)를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제형으로 전체변량의 4%(β=- .17, $p<$ .05)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가 사랑형일수록 애정적인 양육태도에 높이고 통제형일수록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낮추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초기 대상관계 변인은 비난형, 사랑형, 인정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이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 변량의 35%였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난형으로 전체변량의 27%(β= .50, $p<$ .001)를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랑형으로 전체변량의 5%(β=- .22, $p<$ .05)를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정형으로 전체변량의 3%(β= .31, $p<$ .05)를 설명하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가 비난형, 인정형일수록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높이고 사랑형일수록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낮추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인정형의 경우 긍정적인 초기 대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높아짐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인정형의 초기 대상관계다 아동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나.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장애 아동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양육효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기 대상관계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회귀분석(N=111)

양육효능감	예측변인	β	t	$\triangle R^2$	R^2	F
건강하게양육하는능력	방임형	-.33	21.59	.10	.11	13.57***
의사소통능력	비난형	-.32	-3.55	.10	.10	12.59***
	사랑형	.21	2.11	.12	.14	8.74**
훈육능력	사랑형	.36	3.99	.12	.13	15.94***

** p< .01, *** p< .001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기 대상관계 유형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초기 대상관계 유형은 방임형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 변량의 11%(β=- .33, p< .001)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가 방임형일수록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설명력을 나타났는데, 이는 방임되었을 경우 자신도 돌봄을 받지 못하여 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의 효능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의사소통 능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초기 대상관계 유형은 비난형, 사랑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이 의사소통능력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에 대한 양육효능감를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 변량의 14%였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난형으로 전체변량의 10%(β=- .32, p< .001)를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랑형으로 전체변량의 5%(β= .21, p< .05)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가 비난형일수록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에 부정적 설명력을 나타내고, 사랑형일수록 긍정적인 설명력을 나타냈는데, 이는 초기 대상관계가 자신의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의 효능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훈육능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초기 대상관계 유형은 사랑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이 훈육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 변량의 13%(β= .36, p < .001)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가 사랑형일수록 아동을 훈육하는 능력에 대한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설명력을 나타낸다.

Ⅳ. 결론 및 논의

1. 논의

본 연구는 장애 아동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관계 및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수행 된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총수입, 자녀의 발달정도의 일반적인 경향에 따른 초기대상관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초기 대상관계에 따른 양육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초기 대상관계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기 대상관계의 유형인 인정형, 통제형, 무시형, 공격형, 방임형, 비난형, 사랑형, 과보호형에 따른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인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초기 대상관계에 따라서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애정적인 태도와 거부적인 태도에서 차이를 보였고, 자율적,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장애아동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 아동에게 자율을 주거나 부모가 아동을 통제하는 것에는 일반 아동들 보다 장애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동의 경우 좀 더 많은 부분 부모에게 양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초기 대상관계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기 대상관계의 유형인 인정형, 통제형, 무시형, 공격형, 방임형, 비난형, 사랑형, 과보호형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양육효능감은 일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훈육능력, 학습지도 능력의 차이를 검증해보 결과, 초기 대상관계에 따라서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훈육능력에서 차이를 보였고, 일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학습지도능력은 초기 대상관계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장애 아동의 어머니가 장애 아동의 문제 행동 및 도덕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있어서, 다른 양육효능감의 능력보다 자신의 초기 대상관계에 따른 차이가 큼을 나타낸다.

셋째, 장애 아동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과에 따른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초기 대상관계에 따른 양육태도의 영향을 살펴보면,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고,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초기 대상관계 유형은 사랑형과 통제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을수록 자녀에 양육태도에서 애정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통제를 많이 받았을수록, 애정적인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초기 대상관계 유형 중 비난형, 사랑형, 인정형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비난과 인정을 많이 받았을 경우 아동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경우 거부적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대상관계가 인정형의 경우 아동의 장애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거부적인 양육태도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중 어떠한 것도 어머니의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박수정(2009)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초기 양육자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경우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아동에 대한 애정적인 태도를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초기 대상관계가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장애 아동의 어머니들이 초기 양육자와의 경험과는 관계없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좀 덜 자율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으며, 이는 자녀가 장애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특성이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장애아동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방임되어있었을 경우 자신의 아동에게도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비난을 받았을수록 자신의 자녀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부고, 사랑을 받았을수록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을수록 아동을 훈육하는 능력의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 결론 및 제언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 아동의 어머니도 어머니가 자신의 생애 초기에 어떻게 대상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데 대한 태도 및 효능감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모 교육 및 장애 아동 양육지원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자신의 초기 경험을 알고 자신이 어려서 받은 양육을 토대로 하여 현재 장애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심리적 지원을 받아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 유형을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장애 정도를 장애 등급을 3급까지로 나누어서 차이를 보았으나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이후의 연구에서는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별로 보다 많은 수의 대상을 표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기 대상관계 유형 및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으로 가족 기능성, 어머니의 기질, 우울수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등의 다양한 생태학적 변인들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연구에서 이를 포함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검사에는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실제의 초기 대상관계, 양육태도, 양육효능감을 반영하였기보다는 자신의 이상을 평가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인터뷰, 과제상황의 관찰, 교사에 의한 평가법 등의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기 대상관계가 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장애 아동 어머니의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요인을 알아내고 양육태도나 양육효능감을 증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김사훈(1998). 대학생의 초기 대상관계와 공감능력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김수경(2010).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김숙현(2007).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임(2002). 장애아와 비장애아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김창대(1997). 대상관계이론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특성발달: 체면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신치료학회지, 11(1), 57-73.

박경희(2004). 유아의 자기통제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초기대상관계 유형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수정(2009).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 유형이 양육태도 및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반순주(2003).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손재익(2010).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가족탄력성의 구조적 관계: 비장애아동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애현(1996). 정신지체아와 자폐아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요구, 가족특성 및 통제부위와 변인간 상관관계.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과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전경희(2004). 어머니의 초기 대상관계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차경화(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발달장애아동 사회기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톨릭대학교 대학원.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Benjamin, L. S.(1974).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81*, 392-425.

Benjamin, L. S.(199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 1203-1212.

Becker, W.(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Hoffman & L.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Bruner, J.(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 Havard University Press.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2), 295-305.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196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Harper International, New York.

Stern, D.(1995). *The motherhood constellation*. New York: Basic Books.

Teti, D.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The Effects of the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Efficacy for the Handicapped Child Related with Her Early Object Relation Type

Kim, Yu Mi
Kim Sukja Language-cognition clinic

The purpose of the research lies in offering basic recourses for handicapped child's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handicapped child's rearing by analyzing the effects of handicapped child's mother's type of early object relation on mother's rearing attitudeand and Parenting Efficac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11 mothers of the children having brain lesions, developmental disorders and disabilities who were going to special schools, welfare centers and therapeutic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located in Seoul, and Incheon, Gyeonggi-Do.

To sum all the study results up, it is observed that the early object relations of handicapped children's mother are influencing on the rearing attitude and the parenting efficacy. Therefore, if the handicapped children's mother may recognize her early object relation pattern, and reexamine her current 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efficacy based on the experiences received from her parents during the childhood, it deemed to lead the positive impacts in he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 rearing her handicapped child.

Key words : Handicap, Type of Early Object Relation, Rearing Attitude, Parenting Efficacy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통합치료연구 제4권 1호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2012. Vol. 4 No. 1. 25-51

직장인의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 :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강선영 · 홍혜영*
강남 Wee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경쟁적인 사회적 배경에서 직장인의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 관계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공격성 하위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 및 경기지역 중·소·대기업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464명을 대상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와 내현적 자기애척도를 사용하였고 공격성 척도와 조절효과를 보기위해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의 외현적 자기애와 공격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공격성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외현적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은 공격성 표출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분노 표출의 정도에서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업무실적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에 노출 되어있는 자기애성향자들의 직장 외 사회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기개념 명확성수준을 높여 공격성의 수준을 낮추도록 개입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후속연구의 제언과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명확성, 공격성

* 교신저자: 홍혜영,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E-mail: 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 2012년 4월 26일 ■ 최종 수정일 : 2012년 5월 3일 ■ 게재 확정일 : 2012년 5월 15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력을 중시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 타인보다 앞서 자신을 드러내야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적 배경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애적인 성향을 띠게끔 만든다. Lasch(1979)는 현대사회를 자기애의 사회라고 보았고, 자기애의 양식이 사회에서 적응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은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하였다(위혜정, 2008). 병리적인 개념에서 시작된 자기애에 관한 연구는 이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정상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성격적인 특성으로도 연구되기 시작 하였다.

임상가들은 DSM-Ⅳ에 제시된 자기애와 거시적으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유사한 역동과 정서적, 인지적 특성을 지닌 자기애의 존재에 주목하고 자기애의 유형에 대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자기애를 외현적·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박세란, 2004; Akhtar & Tompson, 1982; Cooper & Roningstam, 1992; Wink, 1991a). 두 자기애 유형이 공통된 역동을 지니면서도 서로 다른 현상적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손상된 자기표상을 복구하기 위해 취하는 방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Cooper, 2000).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경탄을 요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며 웅대성을 전시하는 형태로 자기개념을 보호하려는 역동을 나타내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가능한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비난이나 비평을 받을만한 단서가 없는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확언을 피하는 방식으로 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한다(박세란, 2004). 이처럼 현상적으로 전혀 다르게 나타나지만, 유사한 특성을 지닌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기애의 두 유형에 대한 차이와 심리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방글, 오수성, 2009;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황성훈, 2010).

Kohut(1977)은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 조절기능을 내면화하지 못하여 자기대상(self-object)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고,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이를 통한 안정을 갈망하는 상태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 인식한 결과 분노와 공격적인 보복 행동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Bushman & Baumeister, 1988), Chapman, Gratz 그리고 Brown(2006)은 자기애 성향자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위한 충동적인 행동이며, 자존감 손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에 따른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공격적인 반응과 같은 부적응적인 대처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이준득 외, 2007).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또한 일관되게 이러한 사실이 지지되고 있으며, 서수균과 권석만(2002)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적대감, 신체적 공격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자존감을 통제하였을 때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행동 등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특성을 더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

근래에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연구와 함께 동반되는 공격적 성향과 같은 부정적 정서경험과 관련된 정서적 취약성을 예측하는데 자기 효능감, 자존감, 자기개념 명확성 등의 다양한 자기관련 변인들이 중요요인이라는 주장이 계속되어왔다(황성훈, 2010; Donahue, Robinson, Roberts & John, 1993). Stuck과 Sporer(2002)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자기 개념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이지만 모호한 사람들이 자존감에 더 큰 위협을 받는다는 가설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일관된 개인의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공격성과 같은 부정정서 반응에 중요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였다(강일선, 2005). 국내 이준득 외(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 집단을 구분하여 공격성 점수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을 때, 외현적 자기애 집단 중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즉, 자기애가 적응적으로 발달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고 고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부 적응적으로 발달한 자기애는 과도하게 자기에게만 몰두하여 타인에게 관심이 확장되기가 어려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부정적 정서경험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질환에 취약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직장인에게 작용하는 기능적인 자기애는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적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역기능적으로 발달한 자기애는 직장 내 관계갈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증가로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Erikson의 발달단계를 지지한 Vaillant(1977)는 그가 연구한 성인기 성격발달 최초의 종단연구인 그랜트 연구를 통하여 성인 발달특성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30세경부터 경력강화(career consolidation)라는 단계가 첨가되며, 이 단계는 개인이 직업경력을 강화하는 데에 몰두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기에 이르러 생산적 일을 통해 보수를 받는 일정한 직업을 갖고 사회 속에서 개인의 정체감 형성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귀는 사회적 활동의 근원이 되며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자기애성향자들은 특성상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평과와 실적위주의 사회 분위기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마찰로 인해 공격성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고 예측되고 이는 직장 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정의 배우자나 자녀를 향한 공격성향은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관련한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공격적인 특성이 자기애의 또 다른 특성인 내현적 자기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현적 자기애를 포함하여 기존의 자기애 연구를 확장시키고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이전의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더욱 발전하여 사회적 생산자로써 성과에 따라 능력의 수준이 판단되는 직장의 공간적 특성이 자기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에게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연구와 더불어 심리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신건강을 추론하는 주요변인인 자기관련변인을 추가하여 개인의 자기인식수준이 공격성향을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자기개념 명확성 변인을 추가하여 자기애의 주요특성인 불안정한 자기 웅대성과 인정욕구가 타인의 부정적 평가로 인해 좌절되었을 때 안정되고 명확하게 자신을 인식하는 자기애 성향자에게도 동일하게 공격성향이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 및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내현적·외현적자기애, 자기개념 명확성, 공격성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연구문제2. 내현적·외현적자기애는 공격성 하위요인과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3. 내현적·외현적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애(narcissism)

자기애를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주목한 Freud는 처음으로 '자기애'라는 용어를 다양한 심리현상과 행동적인 특성을 기술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Freud를 뒤이어 정신분석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Kernberg(1975)는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에게 과도하게 몰입하고, 야심이 강하고, 자아도취적이며 자존감이 높은 반면 모순되게 타인의 관심,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아름다움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고 보았으며, '웅대하지만 취약한'자기라는 개념으로 자기애 성향자의 내적세계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애적 역설(narcissistic paradox)은 웅대한 자기개념의 아래에 공허하고 취약한 부분이 공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정남운, 2001; 황성훈, 2010). Kohut(1977)은 자기애 성향자의 내적인 구조를 '수직분리(vertical splitting)'개념으로 설명하며, 이는 성장과정에서 유아기에 가지는 인정과 경탄욕구를 양육자가 충분히 공감해 주지 않았을 때, 자기대상의 공감에 실패하여 그 과정에 고착되어 자기애적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자기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실패한 자기대상 공감으로 인해 과시적이고 웅대한 부분이 분리된 거대자기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반영과 인정에 과도하게 의지하게 된다.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와 안정을 늘 갈망하는 상태가 되며 이것이 자기평가에 대한 불안정을 가져온다. 즉 자기애는 성장과정에서 승인욕구의 좌절을 부인하기 위한 웅대성 표방과 그 기저의 공허하고 낮은 자존감의 역동에서 드러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박세란, 2004). DSM-Ⅳ에 따르면 자기애성 성격장애진단을 받은 사람 중 50~75%가 남성이며 이외의 선행연구에서도 남성이 더 많이 자기애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Emmons, 1984; Waston et al., 1984).

그간 이루어진 자기애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 간에 불일치되는 현상들이 많았는데, 이를 설명하는 방안으로 자기애 집단이 하나의 집단이 아닌 이질적인 집단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그 중 유력한 제안 중에 하나로 자기애를 발현양식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자기애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척도들 간에 상호상관이 부족하며, 요인 분석했을 때 두개의 요인이 도출된다는 연구결과(Hendin & Cheek, 1997; Mullins & Kopelman, 1988;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 강선희 &정남운, 2002 재인용)로부터 나왔다. 이들의 연구 중 Wink(1991)는 자기애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보았으며, 이를 발현양상에 따라 두 개의 요인인 외현적 자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된다는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지지하여 자기애를 단일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현양상에 따른 외현적·내현적 자기애 집단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외현적 자기애는 DSM에서 말하는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지각과 과시하려는 태도가 주된 특징이다. 이들에게서는 열등감, 우울, 소진감 등의 정서가 잘 들어나지 않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거대자기 환상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숨겨져 있어서 자신이 친밀하다고 느끼는 편안한 관계에서만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이 나타나고, 평상시 겉으로 들어나는 모습은 우울, 불안, 그리고 과민한 모습들이다. 대게 주변인들에게 소심하고 수줍어한다고 평가되며 스스로가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한다(강선희 & 정남운, 2002). 외현적·내현적 자기애 서로가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애로 명명할 수 있는 이유는 두 유형모두 자기애의 핵심특성인 거대 환상과 특권의식, 자만심, 자기방종, 타인을 무시하는 측면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특성을 연구한 박세란(2004)의 연구에서도 외현적 자기애집단은 긍정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실제-이상적 자기의 일치도도 통제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내현집단은 부정적 자기평가를 보고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모두 공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현집단이 언어적 공격과 적대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애가 방어적인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에서 더 역기능적이라고 보고 하였다(Rose, 2002).

외현적·내현적 자기애는 핵심특성을 같이 하지만, 발현양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자기애의 두 하위유형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자기애와 공격성의 특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데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Chapman, Gratz와 Brown(2006)이 제안한 경험회피모형(experiential avoidance model)에 따르면, 외부에서 타인의 부정적 평가의 자극이 일으킨 강한 부정적 감정을 개인이 적절히 조절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개인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불쾌한 감정에서 회피하기 위해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 쉬운데, 자기애 성향자의 경우 부정적 감정의 조절이 힘들고 타인에게 인정받고자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받은 자존감 손상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공격 반응 같은 부적응적인 대처행동을 보일 수 있다(이준득 외, 2007).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기위해 대상에 실제적으로 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격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해 부정정서를 동반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보복 행동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여기고 있다(Bushman & Baumeister, 1988; 강일선, 2005 재인용). 과민성자기애척도(HSNS; Hendin & Cheek, 1997)를 번안하여 타당화 연구를 한 정남운(2001)은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심리적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외현적 자기애 집단은 외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내현적 자기애 집단은 내향적이고 우울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강진옥(2008)의 연구결과 외현적·내현적 자기집단과 공격성이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고, 서로 다른 발현 양상의 외현적·내현적 자기애라고 하더라도 두 집단 모두 공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김혜경, 2009; 위혜정, 2008).

2. 공격성(aggressiveness)

본 연구에서는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들의 개념은 여러 논의를 걸쳐 정의 되었고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므로, '분노감'을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수반하는 부정적인 감정상태 또는 분노표출과 관련된 정서적행위로 정의하고, '적대감'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으로 타인이나 세상을 보는 태도로 질투심, 피해의식, 증오심 등으로 정의한다. 이 적대감은 부정적 방식을 인지적 인식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동기화 시키며, 적대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공격행동'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파괴적이고 의도적인 처벌행동으로 정의한다. 공격행동은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신체적 공격과 언어를 매개로 한 공격행위인 언어적 공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각 개념과 자기애 두 유형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척도 내에 공격성의 하위요인이 분노, 적대감,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으로 구분되는 한국판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격성은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표현될 경우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고(Hazaleus & Deffenbacher, 1986), 문제해결력을 감소시키며(Ellis, 1976; Novaco, 1979), 개인과 사회의 전반적인 적응을 악화시킬 수 있고(Pan, Neidig, & O'Leary, 1994, 사물의 파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대상은 20세 이상의 직장인으로써 공격성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상호작용을 악화시켜 직장 내에서의 적응 및 업무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심리적 특성상 공격성향을 억압할 경우,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고, 가정의 구성원에게 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격성향이 표현될 경우 배우자나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기개념명확성은 신경증, 부정적정서, 정서경험의 불균형 등과 부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Bigler, Neimeyer & Brown, 2001; Campbell, 1990; Nezlek, Feist, Wilson, & Plesko, 2001). Stuck과 Sporer(2002)는 자기애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한 뒤, 높은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을 수록 쉽게 공격적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높은 자기애 성향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이 자기애 성향자의 공격성 수준에 대하여 중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낸다(길주현, 2008).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준득 외(2007)의 연구 또한 자기개념 명료성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 집단을 구분하여 공격성 수준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을 때, 외현적 자기애 집단 중 자기개념 명료성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여 두 변인간의 관계를 지지하였다.

3. 자기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

초기의 자기개념은 단일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왔고,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자기개념이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Liville, 1985, 1987; Markus & Nuious, 1986). 따라서 자기개념은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내용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기개념의 구조(structure), 조직화(organization) 방식이 개인의 적응적인 정서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김은진, 2006). 자기개념은 자신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관념의 합으로 한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자기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을 중점적으로 변인들과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신의 태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성되어있다. 개인의 자기개념이 정확한지 부정확한지에 관계없이 스스로 인지하기에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또한 시간적으로 얼마나 일관되게 내적으로 안정감 있게 지속되어 형성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즉 자기개념 명확성이란 자기도식의 내용보다는 구조적 자기도식의 구조와 관계가 있으며, 자기도식의 내용이나 자기신념이 시간적으로 안정되게 일관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뜻한다(Campbell, 1990; Campbell & Lavallee, 1993). 개인이 자기에 대해 혼란스럽고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에 대한 명료성의 부족을 나타내게 된다(김은진, 2006).

자기 명확성은 인간의 심리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Bigler,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Neimeyer & Brown(2001)의 자기명확성과 자기개념의 분화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자기명확성이 정신건강을 추론하는 중요변인임을 입증하였으며, 정서의 균형, 만족감, 일관성, 삶의 목적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자기애적 성격의 부정적 정서특성은 다양한 자기관련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계속되어왔다(Donahue, Robinson, Roberts & John, 1993). 그에 따라 자기개념 명확성도 정신건강을 추론하는 중요변인 중 하나로써, 정서의 균형과 일관성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중요한 특성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결과 또한 외현적·내현적자기애와 공격성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이 주요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이수현, 2005). 자기애적 성향자가 자신에 대한 자기개념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상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으로 지각할 가능성은 낮다. 안정적인 자기개념 명확성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개의치 않기 때문에 공격성향이 낮게 나타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반대로 높은 자기애적 성향이 낮은 자기개념 명료성과 결합되었을 때 부정적 정서에 취약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자기개념에 대한 확신의 수준이 낮으므로 불안정한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애 성향자의 경우 일관적이지 못한 자기개념과 불안정한 특성이 외부의 피드백을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고, 부당하다고 여겨 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현적·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분노와 공격성 같은 부정정서의 표출 정도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길주현, 2008; 김은진, 2006; 김혜경, 2009 등), 높은 자기애 성향자이며 낮은 수준의 자기개념 명확성을 가진 집단이 높은 자기애와 높은 자기개념 명확성을 가진 집단, 낮은 자기애 수준의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을 가진 집단 등 다른 어느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성향 등 부정정서의 특성이 나타나는 결과가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중·소·대기업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680명을 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수거하지 못한 설문지와 중복응답,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 적합하지 못한 대상(가정주부, 자영업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총 464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구성은 남성이 259명(55.8%), 여성이 205명(44.2%)이며, 연령에 있어서는 29세 이하가 212명(45.7%), 30~39세 이하 168명(36.2%), 40~49세 이하 68명(14.7%), 50세 이상이 16명(3.4%)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있어서 미혼이 290명(62.5%), 기혼이 169명(36.4%), 이혼이 4명(0.9%), 그 밖에 기타인 경우가 1명(0.2%)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 고졸이하 53명(11.4%), 전문대 졸업자 94명(20.3%), 4년제 졸업자 267명(57.5%), 석사이상이 50명(10.8%)로 나타났다. 직급에 있어서는 사원급 252명(54.3%), 대리급 64명(13.8%), 과장급 55명(11.9%), 차장급 27명(5.8%), 부장급이 22명(4.7%)이었으며, 그 밖에 44명(9.5%)의 대상자가 기타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무형태는 임시직 86명(18.5%), 정규직 378명(81.5)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는 황순택(1995)이 DSM-Ⅲ(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의 진단준거를 보완하여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척도 중 자기애적 성격장애에 대한 것이다. 본래 다른 성격장애와 공유하는 특성의 진단 준거의 포함여부에 따라 공유 척도와 자기애적 성격장애만 해당되는 특성으로 구성한 비공유척도가 있으나, 본 연구는 자기애적 성격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애의 하위요인으로 자기중심성 9문항, 웅대성/자기칭찬과 주목의 욕구 7문항, 과장된 자기지각 2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는데, 좀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한수정(1999)이 수정한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격장애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황순택(1995)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68, 한수정이 수정한 척도는 .8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1〉 자기애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자기중심성	9	2,3,5,7,8,12,14,16,18	.84
웅대성 /자기칭찬과 주목욕구	7	4,6,9,11,13,15,17	.82
과장된 자기지각	2	1,10	.42
전체	18	1-18	.88

나.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Ahktar와 Thomp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척도이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자는 요인분석을 통해 5개 하위척도를 도출하였고 이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공통 요인(CNS23) 2개(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9문항, 착취/자기중심성 9문항)와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CNS145) 3개(목표불안정 9문항, 과민/취약성 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 8문항)로 총 45문항으로 분류하였다.

개발자들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보고되었다.

〈표 2〉 내현적 자기애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목표불안정	9	5,15,20*,23,29,30,37*,42,44	.89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9	2,6,7,13,17,24,33,38,43	.84
착취/자기중심성	9	4,5,11,12,16,22,27,35,45	.83
과민/취약성	10	3,8,10,14,19,25,26,31,36,40	.82
소심/자신감부족	8	1,18,21,28,32,34*,39,41	.78
전체	45	1-45	.93

주. *은 역채점 문항

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 (Self-Concept Clarity; SCC)

자기개념 명확성은 개인의 자기 개념이 얼마나 명확한지, 확신을 가지고 정의되어 있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며,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안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는 Campbell 등이(1996) 개발한 것으로 처음에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문항분석을 걸쳐 12문항 검사로 축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대익(1998)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대 60점을 받을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개발자가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본 연구에서는 .82로 측정 되었다.

〈표 3〉 자기개념 명확성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요소 일관성	7	1*,2*,3*,4*,5*,6,8*	.76
자기 확신성	5	7*,9*,10*,11,12*	.63
전체	12	1-12	.82

주. *은 역채점 문항

라. 공격성척도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AQ-K)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을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신체적 공격행동(9문항), 언어적 공격행동(5문항), 분노감(5문항), 적대감(8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총 27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징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서수균, 권석만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표 4〉 공격성척도의 문항구성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신체적 공격성	9	1,5,9,13,17,21,22,24*,27	.83
언어적 공격성	5	2,6,10,14,18	.68
분노감	5	3,7,11,15*,25	.66
적대감	8	4,8,12,16,20,23,26,19	.83
전체	27	1-27	.91

*은 역채점 문항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서면을 통하여 연구 목적과 취지를 밝히고 협조를 구하였다. 직장인의 특성상 온·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 후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은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별 문항간의 일관도를 측정하는 신뢰도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명확성, 공격성의 하위요 인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공격성과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외현적·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명확성 및 공격성과 하위요인간의 성별 차이분석

미국사회에서 남성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비율이 50~75%로 여성에 비해 높다고 보고되었고(권석만 & 한수정, 2000),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지되지는 않지만, 강일선(2005)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자기애가 남성에 비해 높해 나타나 성별의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료성, 공격성과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성별에 따른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차이에서 남성의 평균이 35.79, 여성이 33.85로(t =3.31 p< .01) 외현적 자기애에서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공격성 전체 부분에 있어서도 남성평균 24.37(t =4.54, p< .001)의 유의미한 높은 차이를 보이며 외국과 일관된 성별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t =7.22 p< .001), 언어적(t =5.04 p< .001) 공격성 각각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신체적 공격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여 졌다.

〈표 5〉 성별에 따른 외현적·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명확성, 공격성 및 분노 t-test 결과

변 인	남성 (n=259) M(*SD*)	여성 (n=205) M(*SD*)	t
외현적자기애	35.79(6.54)	33.85(5.88)	3.31**
내현적자기애	25.60(4.57)	25.78(4.76)	-0.43
자기개념명확성	34.82(5.55)	33.82(5.81)	1.89
공격성	24.37(5.63)	22.10(4.96)	4.54***
신체적	23.63(7.41)	18.99(6.11)	7.22***
언어적	26.32(6.25)	23.37(6.30)	5.04***
분 노	26.44(6.78)	25.56(6.34)	-0.19
적대감	22.69(6.87)	22.03(6.19)	1.07

** p< .01, *** p< .001

2. 외현적·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명확성 및 공격성과 하위요인간의 상관분석

변인 전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각 변인들 간의 정적·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과의 관계는 외현적 자기애(r =- .29, p< .01), 내현적 자기애(r =-.68, p< .01)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과의 관계에서는 외현적(r = .50, p< .01), 내현적 자기애(r = .49, p< .01)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두 자기애 유형은 공격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특히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적대감(r = .65, p< .01)과 분노와의 관계(r = .58, p< .01)에서 외현적 자기애보다 높은 정적 상관을 가졌고, 신체적 공격성에서 내현적 자기애가(r =.18, p< .01) 외현적 자기애(r = .36, p< .01)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외현적 자기애의 신체적 공격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공격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는(r =- .44, p< .01)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6〉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4-1	4-2	4-3	4-4
1 외현적자기애	-							
2 내현적자기애	.42**	-						
3 자기개념명확성	-.29**	-.68**	-					
4 공격성전체	.50**	.49**	-.44**	-				
4-1 언어적	.38**	.31**	-.28**	.88**	-			
4-2 신체적	.36**	.18**	-.19**	.74**	.59**	-		
4-3 분 노	.37**	.39*	-.35*	.73**	.53**	.45**	-	
4-4 적대감	.47**	.65*	-.54*	.79**	.53**	.45*	.48*	-
평균	3.49	2.57	3.44	2.34	2.16	2.50	2.65	2.24
표준편차	.63	.47	.57	.55	.72	.64	.66	.66

* p< .05, ** p< .01

3.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 관계에 대한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상호작용하여서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외현적·내현적 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공격성과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지정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외현적 자기애와 공격성 및 하위요인의 관계에 대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외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β= .58, p< .05). 아래의 <표 7>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효과인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만 투입된 경우, 두 변수 모두 다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포함되었고, 2단계에서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35%의 설명량 통해 지지되었다. 이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의 공격성향의 정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공격성의 하위요인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 모두에 1단계에서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포함되었고, 2단계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을 때에도 유의미하게 설명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나타냈다(β= .78, p< .01, β= .82, p< .01, β= .60, p< .05). 반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적대감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자기개념 명확성이 적대감에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이 높으면 외현적 자기애와 공격성 및 하위요인인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가 낮아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표 7〉 외현적 자기애와 공격성 및 하위요인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β)	2단계(β)
전체	공격성	외현적자기애 (A)	.41***	-.07
		자기개념명확성(B)	-.32***	-.79***
		A×B		.58*
		R	.58	.59
		R^2	.34	.35
		F	119.18***	82.62***
하위요인	신체적	외현적자기애 (A)	.33***	-.32
		자기개념명확성(B)	-.19***	-.83***
		A×B		.78**
		R	.43	.44
		R^2	.18	.19
		F	49.87***	37.10***
	언어적	외현적자기애 (A)	.33***	-.36
		자기개념명확성(B)	-.09*	-.78***
		A×B		.82**
		R	.37	.39
		R^2	.14	.15
		F	36.44***	28.23***
	분 노	외현적자기애 (A)	.29***	-.20
		자기개념명확성(B)	-.26***	-.76***
		A×B		.60*
		R	.45	.46
		R^2	.20	.21
		F	58.01***	41.03***
	적대감	외현적자기애 (A)	.34***	.53**
		자기개념명확성(B)	-.44***	-.25
		A×B		-.23
		R	.63.	.63
		R^2	.39.	.40
		F	150.29***	100.59***

* p< .05, ** p< .01, *** p< .00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에 따른 조절효과는 자기개념명확성이 낮은 집단은 외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비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집단은 외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아져도 공격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두 유형의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역할을 한다는 예측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개념명확성이 낮은 집단은 외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아질수록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비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집단은 외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아져도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분노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높은 외현적 자기애의 분노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현적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부정적 감정상태의 조절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외현적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은 공격성의 표출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분노, 적대감과 두 유형의 자기애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은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및 분노감 정도에서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 및 하위요인의 관계에 대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내현적 자기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으로 공격성 전체와 공격성의 하위요인들 모두 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차이를 연구한 선행연구(강진옥, 2008; 김혜경, 2009)결과에서 외현적·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공격성의 표출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라는 가설을 지지하는데 어렵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은 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에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8〉 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 및 하위요인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1단계(β)	2단계(β)
전체	공격성	내현적자기애 (A)	.37***	.33
		자기개념명확성(B)	-.19**	-.22
		A×B		.03
		R	.51	.51
		R^2	.26	.26
		F	82.36***	54.80***
하위요인	신체적	내현적자기애 (A)	.22***	.15
		자기개념명확성(B)	-.13*	-.20
		A×B		.06
		R	.33	.33
		R^2	.11	.11
		F	27.14***	18.10***
	언어적	내현적자기애 (A)	.10	-.00
		자기개념명확성(B)	-.13*	-.22
		A×B		.08
		R	.21	.21
		R^2	.04	.04
		F	10.20***	6.85***
	분 노	내현적자기애 (A)	.28***	.28
		자기개념명확성(B)	-.16**	-.16
		A×B		..00
		R	.40	.20.
		R^2	.16	.16.
		F	45.05***	29.97***
	적대감	내현적자기애 (A)	.52***	.56**
		자기개념명확성(B)	-.18***	-.14
		A×B		-.03
		R	.66	.66
		R^2	.44	.43
		F	177.13***	117.86***

** p< .01, *** p< .00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V. 결론 및 논의

1. 결과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 및 하위요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여 수준에 따라 공격성의 정도가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외현적·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명확성,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만20세 이상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인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기개념명확성이 두 유형의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 공격성과 하위요인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외현적 자기애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공격성과 그 하위요인인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또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남성의 평균이 35.79, 여성이 33.85로 남성이 외현적 자기애가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사회에서 남성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비율이 50~75%로 여성에 비해 높다는 보고에 따른다(한수정, 1999). Emmons(1984)와 Waston 과 그의 동료들(1984)의 연구 또한 여자에 비해 남자가 자기애적 성향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간 이루어진 국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애의 성별차이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윤조(200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가 하위유형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강일선(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여성의 자기애가 남성보다 높게 보고되었으며, 강진옥(2008)의 청소년을 대상의 성별차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자기애의 양상이 다르고, 남성과 여성의 자기애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한 Bärbel wardetzki(2006)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애의 하위 유형들 중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연구대상에 따라 중·고생, 대학생과 달리 직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능력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진급이나 결혼 및 출산 후 직장문제에 있어서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적응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대학생과는 달리 남성의 자기애가 높게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둘째, 외현적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 공격성과 각 하위요인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공격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자기개념 명확성과 공격성 및 각 하위요인은 부적 상관을 보이며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이 공격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Stucke & Sporer, 2002). 이에 따른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격성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지지되었다.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공격성, 분노감에서 또한 조절효과를 보였고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관이 부정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자존감을 더 크게 위협받고,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여겨 상대방을 깎아내려 자기상을 재구축한다고 주장한 Baumeister(1997)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적대감에서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외현적·내현적 자기애 집단의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에 따른 적대감이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만,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격성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지지되었다.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에서 또한 조절효과를 보였고 특히 언어적공격성에서 조절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긍정적인 자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자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관이 부정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자존감을 더 크게 위협받고,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여겨 상대방을 깎아내려 자기상을 재구축한다고 주장한 Baumeister(1997)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적대감에서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애 성향자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부적응적인 대처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한 Chapman, Gratz 그리고 Brown(2006)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적대감의 개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마음에 담아두는 정적인 행동양식보다는 언어나 신체적 공격의 양식을 더 많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 및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종속변인들 간의 차이에 대해 연구해온 선행연구(김은진, 2006; 서수균, 2007, 서수균 & 권석만, 2002)들의 결과와 부합되지 않은 결과로써, 선행연구 결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에 따른 각 집단의 공격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 및 하위요인인 언어적·신체적 공격성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과 분노와 적대감을 조절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는 그간의 선행연구가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모집단에 따라 표본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회피적 성격장애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Bleiberg, 1994; Dickinson & Pincuse, 2003), 적절한 단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Wu, Feng, & Lo, 2010) 내현적 자기애 욕구가 좌절될 때 내면화된 수치심이 유발되어 스스로를 부적절하고 무력하게 느낀다고 한다(한혜림, 2004).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외부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세란(2004)의 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특성이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 보다 더욱 열등감을 느끼고, 끊임없는 자기의심과 타인의 비판에 대해 민감하여 공격성이나 적대감의 수준이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준득(2007)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고,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여 더 우울하고 공격적이며 분노억제 수준도 높았다고 보고되었다. 실제로 연구 내용상 설문 내용이 공격성향과 자기애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설문을 완료한 몇 몇의 연구 대상자가 결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나타냈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결과가 누출될까 걱정했다. 또한 직장의 업무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구나 직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싶은 욕구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은 지위를 누리려는 욕구가 클수록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인상과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인상에 관심을 두게 되고(Tetlock, 1992),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아 자신이 원하는 지위와 직업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Frink & Ferris, 1998) 직장인의 특성, 자기보고식 설문방법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특성인 직장 내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가의 민감성과 취약성이 반영된 결과로 대상자 스스로가 문항을 통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직장에서 업무의 실적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 노출 되어있는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공격성을 적절하게 대처하여 직장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개념 명확성을 높여 치료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만 20세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외현적·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명확성,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과 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울 및 경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애를 다루었는데 반해, 직장인은 청소년과 대학생과는 다른 오로지 자신의 업무능력으로 평가받는 직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부정정서인 공격성과 그 하위요인의 과도한 표출은 개인뿐 아니라 직장생활과 더 나아가 가정 내에 가족 즉 배우자나 자녀의 상호 관계에서 또한 영향이 미칠 것이며, 개인의 심리적 증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각 변인들과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외현적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인 직장인의 자기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도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을 높여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분노의 표출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모든 성인에게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종별 집단표집을 통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자기애의 특성상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이상적인 문항에 답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결과를 측정에 한계가 있다. 특히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경우, 자기보고식과 더불어 면접상담을 통한 질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자기개념 중 인지적 구조인 자기개념에 대해서만 다루었는데, 총체적인 구조적 자기개념을 다룬 연구에 의하면, 자기복잡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모두 높을 때 심리적으로 건강함을 알 수 있다고 한다(이수현, 2005). 따라서 조절효과를 보는데 자기개념 명확성뿐만 아니라 자기복잡성이 더해졌을 때 부정정서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강선희, 정남운(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강일선(2005). 자기애와 자기개념의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강진옥(2008). 청소년의 내·외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200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8(3), 627-642.

길주현(2008). 자기애의 세부특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7(4), 911-924.

김대익(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방글, 오수성(2009). 실패경험이 외현적·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8(4), 1069-1081.

김은진(2006). 자기개념 명확성과 성격특성에 따른 분노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김혜경(2009). 청소년의 자기애성향 및 자기개념 명료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세란(2004).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4(2), 255-266.

박정민(1998). 비행 청소년의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수균(2007).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서수균, 권석만(2002).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위혜정(2008). 완벽주의가 내현적 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양식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수현(2005). 섭식문제가 있는 여대생의 완벽주의 패턴과 자기 지식 구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윤조(2002).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2007).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6(2), 463-477.

정남운(2001).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한수정(1999). 자기애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인지 특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혜림(2004).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황성훈(2010). 자기애 성격 성향자들의 자기구조특성: 외현형 및 내현형 자기애의 하위분류에 따른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9(3), 507-531.

Akhtar, S., & Thompson, A.(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20.

Bärbel W.(2006). 여자의 심리학 (감희진 역.). 서울: 북폴리오.

Baumeister, R. F.(1997). Esteem threat, self-regulatory breakdown, and emotional distress as factors in self-defeating behavior.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 145-174.

Bigler, M., Neimeyer, G. J., & Brown, E.(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396-414.

Bleiberg, E.(1994). Normal and pathological narcissism in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8*, 30-51.

Bushman, B. J., & Baumeister, R. F.(198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se self-love ore self- 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Buss, A. & Perry, M.(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Campbell, J. D., & Lavallee, L. F.(1993).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wards. In R. F. *Baumeister(Ed.). Who am I? : The role of self-concept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people with low self-esteem*. New York; Plenum.

Campbell, J. D.(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83-549.

Chapman, A. L., Gratz, K. L., & Brown, M. Z.(2006). Solving the puzzle of deliberate self-harm: The experiential avoidance model.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4*, 371-394.

Cooper, A. M.(2000). Further Development in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m personality disorder. On F. Elsa & E. Ronningstam(Eds.). *Disorder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London; Jason Aronson Inc.

Cooper, A. M., & Ronningstam, E.(199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Tasman, A., & M. B. Riba(Eds.).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1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Dickinson, K. A., & Pincus, A.(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17*, 188-197.

Donahue, E. M., Robinson R. W., Roberts, B. W., & John, O. P.(1993). The divided self; concurrent and longitudinal effect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al roles on self-concept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34-846.

Ellis, A.(1976). Techniques of handling anger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2*, 305-315.

Emmons, R. A.(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Frink, D. D., & Ferris, G. R.(1998). Accountability, impression management, and goal setting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Human Realations, 51*, 1259-1283.

Hazaleus, S. L., & Deffenbacher, J .L. (1986). Relaxation and cognitive treatments of ang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222-226.

Hendin, H. M., & Cheek, J. M.(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Kernberg, O. F.(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Kohut, H.(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Lasch, C.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Norto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Liville, P. W.(1985). Self-complexity and affective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 94-120.

Liville, P. W.(1987). Self- 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Markus, H., & Nuiois, P.(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54-969.

Mullins, L. S., & Kopelman, R. E.(1988). Toward an assessmen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four measur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10-625.

Nezlek, J. B., Feist, G. J., Wilson, F. C., & Plesko, R. M.(2001). Day-to-day variability in empathy as a function of daily events and m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5*(4), 401-423.

Novaco, R. W.(1979). The functions and regulations of the arousal of ang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3*, 1124-1128.

Pan, H. S., Neidig, P. H., & O'Leary, D.(1994). Predicting mild and severe husband-to-wife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5), 975-981.

Rose, P.(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Stuck, T. S., & Sporer, S. L.(2002).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 590-532.

Tetlock, P. E.(1992). The impact of accountability on judgment and choice: to ward a social contingency model. In Zanna, M. P.(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Harcourt Brace Jovanovich* New York: Academic Press.

Valliant, G. E.(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Little, Brown.

Watson, P. J., Grisham, S. O., Trotter, M. V., & Biderman, M. D.(1984). Narcissism and empathy: Validity evidence for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3), 301-305.

Wink, P.(1991a). Self and object relatedness in adult woman. *Journal of Personality, 59*(4), 769-791.

Wu, C., Lo, Y., Feng, F., & Lo, Y.(2010). Social skills training for Taiwanese students at risk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6*, 1-1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Career's Overt · Covert Narcissism and Aggressiveness : Moderating role of Self-concept Clarity

Kang, Sun-Young · Hong, hye young+
Kang Nam Wee center ·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t · covert narcissism and aggression, and explore the moderating of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t · covert narcissism and aggression. This research was done by conducting surveys from 464 employees who live in Seoul and Gyeonggi-Do.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in the examination of the differences in narcissistic personalities according to career's gender. Male than female shows higher grades in overt narcissism. But covert narcissism shows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 gender. Second, the correlation analysis regarding overt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aggressiveness and self-concept clarity,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ggressiveness and narcissism, and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Third, self-concept clarity moderated the effect of overt narcissism in the aggressiveness. In particular it moderated the effect of physical aggressiveness, verbal aggressiveness and anger.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Overt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Self-Concept Clarity, Aggressio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통합치료연구 제4권 1호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2012. Vol. 4 No. 1. 53-73

치료놀이를 활용한 다문화 부부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사례연구

선우현*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치료놀이를 활용하여 다문화부부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부부집단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사례분석은 결혼이민자부부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에 신청한 4쌍의 부부 중 전체회기에 참석한 3쌍의 다문화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부부집단치료 프로그램은 50분씩 총 8회기로 구성하였으며 참여자들은 베트남, 태국,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아내와 한국인 남편으로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 과정에서 나타난 부부간 상호작용 변화요인 및 과정은 사례연구의 분석절차를 따라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8개의 하위구성요소에 따라 1)공간적 상호작용, 2)양육적 상호작용 3)공감적 상호작용, 4)개방적 상호작용이라는 4가지의 상호작용 특성을 찾았다. 연구결과 부부집단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부부들은 부부 간의 정서적 교류와 신체접촉을 통한 친밀감이 촉진되고, 이를 통한 자기인식 및 타인인식과 공감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긍정적 정서와 더불어 긍정적 시각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치료놀이의 경험이 부부 간의 부정적 인식의 틀을 바꾸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의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치료놀이를 활용한 부부집단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 부부 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하여 단기간에 개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어 : 다문화부부, 부부집단치료, 상호작용, 비언어적 의사소통

* 교신저자: johann02@mju.ac.kr
■ 게재 신청일 : 2012년 4월 2일 ■ 최종 수정일 : 2012년 5월 11일 ■ 게재 확정일 : 2012년 5월 12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Ⅰ. 서 론

대부분의 부부는 결혼 초기 자신의 원 가족관계 안에서 익숙한 방식대로 생활하게 되며 서로의 방식을 주장하게 되면서 부부 갈등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부부라는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게 된다고 본다(최혜경 외, 1994). 특히 다문화 부부의 경우는 부부라는 새로운 체계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그 적응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대 중반부터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국제결혼건수는 1990년 4,710건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9,211건으로 약 24배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 그러나 최근에는 다문화 부부의 경우 서로 간의 문화와 언어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부부관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면서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의 이혼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혼건수가 총 이혼건수의 9.7%에 해당하며, 2004년 3300건에서 2008년 1만1255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여성의 이혼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80.2%가 5년 안에 이혼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동거기간이 2.7 년이었다(공수연, 2009). 이는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이 결혼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다문화 가족의 적응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기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생활 적응의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다문화 가족들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문제제기 되었다면 최근에는 다문화 부부 간의 갈등을 다룬 연구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공수연, 2009).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결혼이민자 여성이 안고 있는 주된 문제점으로는 제한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Menjivar and Salcido, 2002; 이금연, 200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과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이금연, 200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시댁과의 갈등(홍기혜, 2000), 남편의 좋지 않은 습관과 성격의 차이(강유진, 1999; 이규삼, 2000), 가정 내 역할기대의 불일치(Rhee, 1997; 홍기혜, 2000)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상대적으로 다루어진 연구가 거의 없지만 채옥희와 홍달아기(2008)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 남편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격 탓이기보다는 국가 간, 인종 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부역할이나 가사노동분담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기회가 적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의욕이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아내가 남편에게 적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과 중국조선족 결혼이민 여성들의 부부갈등을 다룬 강유진(1999)의 연구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가족관계 중에서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부부갈등의 주요한 요인을 살펴 본 소병숙(2009)의 연구를 보면, 다문화 부부가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점, 부부 간의 정보부족이나 왜곡,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다문화부부 모두가 두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현실에서 다문화 부부 간의 입장 차이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이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지 못했을 때 부부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차이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의 부재, 배우자 간 차이점 이해의 부족, 의사소통의 문제점 등 부부갈등의 원인을 대부분 안고 있는 다문화 부부에게 있어서 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대처능력 및 적응기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부부 간의 갈등과 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집단 상담이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모의회, 2001; 박남숙, 2000; 송정아, 2006; 이창숙 & 유영주, 1998; Baucom & Hoffman, 1986; Miller, et al., 1971; Wampler, et al., 1980). 부부 상담에서 집단 상담적 접근과 치료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인지 행동적 관점과 인간중심적 접근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대상관계이론이나 정서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에 기반을 둔 부부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현숙, 1999; Feld, 2003; Jacobson et.al., 1993; Gottman, 1994). 부부관계에서 상호이해, 개방적 의사소통, 진실한 태도, 그리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훈련에 초점을 둔 다문화가족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에서도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김연수, 2010).

부부집단상담의 치료적 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간중심적 접근에서 부부들은 집단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함과 유대감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치료적 공간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자각하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경청하며 상호 존중하는 맥락에서 갈등을 조정하기를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Gaylin, 1990; 박남숙, 2005). 인지 행동적 접근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다양한 갈등해결 방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주효과로 보았다(Jacobson, et al., 1993). 대상 관계적 접근에서는 수용적이고 안정적인 심리적 환경의 경험이 치료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박남숙, 2005). 즉, 부부집단상담의 치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용적이고 안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 집단분위기의 조성과 집단원 모두와 부부 각자에 대한 수용과 공감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다문화 부부의 건강한 결혼생활 유지를 위하여 결혼 초기의 부부 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한국생활적응에 관한 프로그램만이 시와 군 단위로 연중 진행되고 있으며, 결혼생활 적응이나 부부관계 향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이은주, 2007). 더구나 최근 실시된 결혼이민여성과 배우자를 위한 부부관계 향상 집단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통역을 통한 간접적 방법을 선택하거나 10년 이상 된 다문화 부부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제한되어 있었다(공수연, 2009; 소병숙, 2009). 이처럼 다문화 부부 상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련된 이론이나 치료적 기법이 활발히 소개되고 있으나 치료적 요인이나 효과, 더 나아가서 다문화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집단 상담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치료놀이가 부모-자녀 간 긍정적 상호작용 촉진에 많은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데 신체적 접촉을 통한 놀이를 강조한 치료접근으로 정서적 교류에 강조점을 두어 건강한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상희, 2009). 특히 부부 간 또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 친밀감이 와해되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에게 가족 간 신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갖도록 촉진한다고 보고하고 있다(홍정애,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제한된 언어적 의사소통을 극복하고 신체접촉을 통한 부부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데 목표를 두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서적 공감 및 친밀감 그리고 상호이해 및 상호작용 촉진이 보고된 치료놀이를 활용해 부부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다문화 부부의 상호작용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결혼이민자부부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4쌍의 다문화 부부로서 4명의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에서 이주해 온 4명의 결혼이민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아내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모집기관으로부터 사전면담을 통해 '다문화 부부를 위한 상호작용 촉진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이중에서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4회기만 참석한 필리핀 아내와 한국인 남편 부부는 사례분석에서 제외하고 모든 회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만 사례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2쌍의 부부는 결혼 4년차로 태국과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여성결혼이민자이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 '살고 싶은 집'으로 부부애칭을 정한 부부는 태국에서 온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연령 차이가 15년이며 아들이 있다. '사랑은 국경이 없다' 부부는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아내와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25년이며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마지막 1쌍의 부부는 결혼 1년차로 중국인 아내는 모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아서 한국어 쓰기와 읽기는 가능하였지만 의사소통은 제한되어 있었다. '화목한 가정'이라는 부부 애칭을 정하였으며 신혼초로 아직 자녀가 없으며 부부 간 연령차는 13년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부부 집단애칭	살고 싶은 집		사랑은 국경이 없다		화목한 가정	
개별애칭	다인신랑	민준엄마	독수리	봉황	앵무새	웃다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나이	42세	27세	48세	23세	35세	22세
결혼기간	4년	4년	4년	4년	1년	1년
자녀 수/ 연령	1남/2세	1남/2세	1남(4세)/ 1녀(2세)	1남(4세)/ 1녀(2세)	무	무
종교	무	무	기독교	기독교	무	무
직업	자영업	주부	자영업	주부	생산직	주부
출신국	한국	태국	한국	베트남	한국	중국

2. 연구대상자 부부 간 상호작용 특성

본 연구에서는 부부 간의 상호작용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척도로 Olson의 Circomlpex 모델에 근거한 임상평가척도(Clinical Rating Scale for circumplex: CRS, 1984)를 사용해서 부부의 응집성과 적응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Olson의 순환모델(Olson et al., 1984)에서 응집성(cohesion)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것으로 본 척도에서 응집력은 정서적 유대, 관여,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 내 경계, 외부경계라는 하위요소로 구성되고, 문항은 5점 척도로 총점은 10점에서 50점의 범위 안에서 격리, 분리, 연결, 밀착이라는 축에서 평가하였다.

적응성(adaptability)은 '상황적, 발달적 요구에 대응하여 가족체계의 권력의 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 상호작용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척도에서 적응성은 리더쉽, 훈육, 협상, 역할, 규칙으로 구성되어 문항은 5점 척도로 총점은 10점에서 50점까지의 점수범위 안에서 경직, 구조, 융통, 혼돈이라는 축에서 평가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다인신랑과 민준엄마 부부, 독수리와 봉황 부부, 앵무새와 웃다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에서 모두 응집성에서 격리로 분류되었다. 이는 부부 간의 응집력이 극단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 유대감이 무척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부 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하지 못하며 정서적 유대나 부부관계의 질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부부 간의 응집성 점수 분포를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들의 응집성

	격리	분리	연결	밀착	전체
점수범위	10-35	36-39	40-43	44-50	10-50
연구대상자	다인신랑(27) 민준엄마(28) 앵무새(30) 웃다(26) 독수리(23) 봉황(34)				

반면에 결혼 4년 차인 다인신랑과 민준엄마 부부, 독수리와 봉황 부부는 적응성에서 구조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부부관계의 질이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결혼 1년차인 앵무새와 웃다 부부는 적응성에서도 경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 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하지 못함으로 인해 아직 부부관계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부 간 적응성 분포는 <표3>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3〉 연구대상자들의 적응성

	경직	구조	융통	혼돈	전체
점수범위	10-25	26-29	30-33	34-50	10-50
연구대상자	앵무새(18) 웃다(17)	다인신랑(27) 민준엄마(28) 독수리(26) 봉황(29)			

이상과 같이 Olson의 순환모델에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에 기초한 연구대상 부부들의 상호작용 특성을 살펴보면 응집성이 모두 낮아 부부 간에 지나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앵무새와 웃다 부부를 제외하고는 적응성에서는 중간 정도의 부부관계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앵무새와 웃다 부부는 극단수준의 부부로, 다인신랑과 민준엄마, 독수리와 봉황 부부는 중간범위의 부부로 구분할 수 있겠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자는 치료놀이를 활용한 다문화부부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을 50분씩 8회기로 구성하고 미국 치료놀이사 자격을 이수한 치료놀이사와 부부치료전문가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2010년 9월부터 10월까지 '결혼이민자부부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문화 부부 4쌍을 대상으로 4주 간 매주 한번 2회기씩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보조진행자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기관의 사회복지사 2명이 참관하여 비디오 촬영과 관찰기록을 담당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후에는 프로그램 구성과정에서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은 국제치료놀이사와 부부치료전문가가 참여한 수퍼비젼을 통해 사례관리를 받은 후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들 간의 사례회의를 거쳐 프로그램 과정에 나타난 부부 및 집단 간 상호작용 내용, 의사소통 과정 그리고 행동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회기별로 변화된 다문화 부부의 상호작용 형태에 대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에서 연구자는 다문화 부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내용을 중심으로 그 변화영역을 살피고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변화과정과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4. 치료놀이를 활용한 다문화부부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구성

초기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모델로 개발된 치료놀이는 언어사용 이전의 상호작용 방법을 활용하여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기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조화된 치료기법으로 신체적 접촉과 눈맞춤 그리고 이를 통한 정서적 교류를 중요시한다(이상희, 2009). 친밀하고 개별적이고 집중적이면서도 재미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비교적 단기적인 치료방법으로 애착관계의 토대 위에 '지금-여기(here and now)'의 구체적 경험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개개인의 자신감에 기초가 되며, 개개인이 새롭고 사랑스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된다(Mullen, 1999). 또한 서로간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놀이 활동을 통해 친밀한 관계경험의 기회를 제공받는다(김수정, 2002).

따라서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의 부재, 배우자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부족, 빈약한 의사소통양식, 경직된 갈등해결 양식 등(권정혜 & 임승락, 1998; 권정혜 & 채규만, 2000; Jacobson & Gurman, 1995)은 부부 간 신체접촉의 상호작용을 통한 친밀감 형성, 공감적 상호작용을 통한 서로에 대한 긍정적 시각 및 관계의 질을 향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개방적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가 부족하거나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문화 부부에게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응집성, 적응성 등을 통해 살펴본 부부 간의 상호작용 특성을 통해 치료놀이를 활용하여 다문화 부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 촉진을 목표로 부부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각 회기에 구조, 도전, 개입, 양육과 즐거움의 치료놀이 원리를 이용한 구체적 목표가 제시된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간 친밀감을 형성한다. 부부 간의 신체접촉은 긍정적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촉진시키며 이를 통해 부부 적응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둘째, 부부 간 상호존중을 높여준다. 부부는 신체접촉과 따뜻한 보살핌을 통하여 서로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부부 간 공감대를 형성한다. 즐거움이라는 정서적 교류를 경험한 부부는 서로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고 수용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높이게 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넷째, 부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 부부 및 집단 간 긍정적 관계경험 및 수용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하고 이는 보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 내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다.

치료놀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집단 간 상호작용 놀이를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요인들을 통합하여 친밀감 형성을 위한 공간적 만남, 신체접촉을 통한 자기인식, 정서적 공감을 통한 타인이해, 개방적 의사소통이라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문화 부부의 특성에 맞는 활동내용을 구성하였다. 주제에 따른 활동내용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밀감이라는 주제에서는 1, 2회기로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기대를 나누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구조화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적 만남을 통해 안정감과 예측 가능한 환경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초기의 긴장감과 불안을 감소시켜 다문화 부부 및 집단 간의 친밀감 경험 및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었다.

두 번째는 자기인식이라는 주제로 3, 4회기에서 개입과 양육활동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신체접촉 놀이를 통한 다문화 부부 상호 간의 애착과 양육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부부 간의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을 통해 서로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 긍정적 자기인식 및 애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정서적 공감으로 5, 6회기로 도전과 개입활동을 중심으로 즐거움을 촉진시켜 정서적 공감과 격려 안에서 다문화 부부가 서로 간의 수용과 공감적 인식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집단 안에서의 긍정적 관계 맺기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또한 타인에 대한 수용 및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원의 긍정적 정서를 촉진시키는 것을 기대효과로 삼았다.

네 번째는 개방적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7, 8회기로 구성하였다. 개입과 도전 활동을 통해 개개인이 긍정적 시각 속에서 다문화 부부 간의 감정을 개방적으로 표현하여 세상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부부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었다. 더 나아가 부부 간의 부정적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긍정적 시각 속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기대효과이다.

본 프로그램의 주제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기대효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4〉 다문화 부부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회기	주제	목표	활동 내용	기대효과
1-2 회기	친밀감 형성을 위한 공간적 만남	부부 간 친밀감 형성	1)프로그램 소개 2)그림 속의 나를 표현하기(나는요?) 3)부부 협동그림 그리기(우리는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부부 및 집단 간 친밀감 경험
3-4 회기	신체접촉을 통한 자기인식	부부 간 상호존중 강화	1)손과 발 그리기/ 손과 발 찍기 (구조/개입) 2)손과 발 맛사지/ 밴드 붙이기(양육) 3)미이라 만들기/공던지기(양육/도전)	서로간의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을 통해 서로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
5-6 회기	정서적 공감을 통한 타인이해	부부 간 공감대 형성	1)거울 되어보기(구조) 2)꼭꼭 숨어라(양육)/ 나는 누구일까요 (개입) 3)감정카드 맞추기(도전)	즐거움이라는 정서와 격려 안에서 공감적 인식과 타인을 수용하는 긍정적 관계 경험
7-8 회기	개방적 의사소통	부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강화	1)눈 깜박이지 않기/ 풍선치기 (구조/개입) 2)우리 집에 왜 왔니?(개입/도전) 3)장미꽃 바치기(도전)	세상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경험

III. 연구결과

치료놀이를 활용한 다문화부부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2010년 9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결혼이민자 부부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4쌍의 다문화 부부들에게 50분씩 총 8회기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와 놀이치료사가 함께 진행하였고,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비디오 촬영과 관찰기록을 담당하였다. 사례분석과정은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했으며, 사전면담에서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친밀감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을 시작으로 신체접촉놀이, 즐거움을 일으키는 정서반응놀이, 그리고 개방적 자기표현 놀이를 단계적으로 경험하도록 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들의 상호작용 내용과 행동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다문화 부부 간 상호작용 변화영역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치료놀이를 활용한 부부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다문화 부부 간 상호작용 변화영역은 공간적 상호작용, 양육적 상호작용, 공감적 상호작용 그리고 개방적 상호작용으로서 4가지의 영역을 추출하였고, 그 하위요인은 총 8가지로 친밀감, 행동 및 표정에 대한 긍정적 반응성, 긍정적 자기인식, 부부 간의 긍정적 피드백, 부부 이해, 공감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정서반응, 개방적 자기표현, 그리고 부부 간의 긍정적 시각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부부 간 상호작용의 변화영역과 그에 따른 하위요인은 <표 5>과 같다.

〈표 5〉 상호작용 변화와 그 하위요인

상호작용 변화	하위요인
공간적 상호작용	친밀감
	행동 및 표정에 대한 긍정적 반응성
양육적 상호작용	긍정적 자기인식
	부부 간의 긍정적 피드백
공감적 상호작용	부부 이해
	공감적 정서반응
개방적 상호작용	개방적 자기표현
	부부 간의 긍정적 시각

1. 공간적 상호작용

부부집단치료놀이의 첫 회기에 치료자는 결혼여성이민자 아내들과 먼저 눈맞춤을 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안전한 틀 속에서 자신을 경험하고 타인을 경험하도록 그림 그리기를 매개체로 한 “나는요?”를 통해 자신을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으로 나타내도록 시도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다소 긴장하였으나 그림그리기에 집중하면서 그림이라는 매개체 속에서 다소 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각기 다른 국적의 결혼여성이민자 아내와 남편들의 첫 만남은 무척이나 어색해하였으나 그림으로 표현한 나를 보여주면서 애칭을 짓고, 두 번째로 부부가 함께 협동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부부 간 응집과 참여를 높일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그림을 이야기할 때보다 부부의 그림을 소개할 때 더 활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에서 알 수 있었다. 부부는 그림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차츰 집단 간 친밀감을 형성해 나갔다. 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원들이 자신 이외의 세계와 접촉하고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통해 부부 및 집단 간의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안전한 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원들의 행동 및 표정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의 반응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개인이 좋아하는 색깔, TV 프로그램, 좋아하는 일, 옷과 동물 등을 말하고 기억해서 맞히기 게임을 하자 서로간의 공간적 만남은 심리적 친밀감으로 연결되었다. 언어적 활동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포함된 맞히기 게임에서는 남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각자의 아내들 특징을 대부분 알아맞히자 아내들의 긍정적 정서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가장 친숙해 보이고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다인신랑과 민준엄마' 부부는 좋아하는 색깔이 녹색과 초록색으로 같았으며, 가장 좋아하는 옷도 편하고 풍성한 옷, 가장 좋아하는 일도 여행으로 같았다. 서로 많은 부분이 닮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남편이 언급하면서 "우리는 정말 잘 만났다"고 말하자 아내도 "나도 당신을 참 잘 만났다"라는 적극적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심리적 만남의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른 부부들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도왔다. 부부협동화 그리기에서는 '살고 싶은 집'이라고 하면서 아직 전세를 살고 있는데 열심히 돈을 벌어 우리 집을 가지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하였다.

반면에 '독수리와 봉황' 부부의 경우는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뉴스이고 좋아하는 일도 공부라는 것에 대해 처음 알았다고 언급하자 아내는 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남편이라고 서운해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신의 특징을 모두 알아맞히자 처음엔 다소 경직되어 있었으나 눈에 띄게 밝은 표정으로 바뀌어 갔다. 이후에 부부가 함께 그리는 '우리는요?' 에서는 하트 안에 지구를 그려 넣어 서로 다른 나라의 부부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사랑은 국경이 없다'는 제목을 붙였다면서 우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쑥스러워하면서 설명하였다.

'앵무새와 웃다' 부부의 경우, 아직 신혼이면서 '웃다'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충분치 않아 적극적으로 알아맞히지는 못하였으나 한국어 읽기가 가능하여 글로 대신 하였다. 특히 부부가 함께 그리기에서는 다른 부부들보다 오랜 시간을 들여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 서로 마주보며 즐거워하였다.

2. 양육적 상호작용

부부가 서로간의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을 통해 서로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양육적 만남은 부부 간의 양육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켰다. 양육적 상호작용이 긍정적 자기인식과 함께 긍정적 정서교류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육적 상호작용은 집단원 스스로 가치 있고 사랑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하면서 즐거움이 유지되므로 위축되고 경직된 부부 상호간에 빠른 긍정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부부가 서로의 손과 발을 자세히 살펴서 모양을 찍어준 후 깨끗이 닦아서 손과 발 맛사지를 해주는 활동으로 시작하여 혹시 상처가 있으면 밴드를 붙여주며 신체접촉과 양육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경험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손과 달리 발은 양말을 벗어야 하기에 다들 주저하였지만 막상 찍기를 하고 손과 발 맛사지를 서로에게 해주자 모두 들뜬 기분으로 즐거워하였다. 서로에게 맛사지를 해주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모두 낯설어 하였지만 기분은 매우 좋다고 고백하였다.

특히 '독수리와 봉황' 부부는 처음엔 양말 벗기를 거부하였지만 맛사지를 할 때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독수리: 쑥스럽지만 기분은 좋은데.
봉 황: 당신 좋아해? 몰랐어. 이제부터 내가 자주 해 줄게. 나 아주 잘해.

남편과의 상호작용에서 다소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집단원 중에서 가장 긴장되어 있던 봉황이 맛사지를 할 때는 가장 말이 많았고 흥분해 있었다. 남편의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양육과 도전을 함께 경험하는 미이라 만들기에서는 아내들이 전부 남편들을 미이라로 만들어 주었다. '다인신랑과 민준엄마'의 경우는 남편이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었으나 아내가 자신을 돌보아 준다는 느낌이 기분 좋았다고 말하였고, 다른 남편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전체 활동에 대한 피드백 시간에 모두들 상기된 표정으로 너무 즐거웠으며 이렇게 웃으면서 부부가 함께하는 경험은 처음이라고 고백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공 던지기에서는 처음으로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끝나자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육적 상호작용이 집단 간 상호작용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내는데 기반이 된다.

3. 공감적 상호작용

즐거움이라는 정서와 격려 안에서 부부 간에 공감적 상호관계를 맺을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흥분, 재미, 예상치 못했던 기대를 통해 부부와 집단 속에서 수용과 지지를 경험하면서 집단원들은 심리적 만족을 얻게 되고 이는 신뢰감 속에서 부부 간의 공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부부 간의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공감적 정서표현으로 이어졌다. 즉 부부 간의 공감적 상호작용이 촉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감적 만남으로는 담요로 상대방을 가린 후 남편과 아내가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흉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내는 활동으로 시작하여 신체접촉을 통해 부부가 서로를 반영해 주도록 하며 부부 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었다.

아직 신혼인 '앵무새와 웃다'가 가장 재미있는 몸짓을 취하면서 서로의 거울이 되어 주었다. 몸속에 숨긴 사탕 찾기에서도 '앵무새와 웃다'는 찾기 힘든 곳에 숨겨놓고 찾기 놀이를 즐기는 듯했다. 이를 지켜 본 다른 부부들도 다음 과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원을 만든 후 한 사람이 그 속에서 눈을 가린 채 자신의 배우자를 손으로 만져서 찾는 "나는 누구일까요?" 활동에서는 참여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내었다. 서로를 찾은 부부들의 입가에는 한동안 웃음이 지속되었다.

개입활동을 통해 집단 안에서의 신뢰와 친밀감이 더욱 고조되자 부부 간 정서적 상호작용이 증가하였고, 이는 공감적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었다. 특히 선택한 감정카드를 보고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기분이 드는가를 몸짓이나 언어로 설명하면 집단원이 함께 맞추는 "감정카드 맞추기"에서 잘 드러났는데, 대부분 부부끼리 서로의 감정을 가장 잘 맞추었으며 이는 부부 간의 신뢰와 성취감으로 이어졌다. 특히 다인신랑과 민준엄마는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한 에피소드를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냈으며 이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잘 이루어졌다.

다인신랑 : 비가 올 때 내가 느끼는 기분
민준엄마 : 기분 좋다.
민준엄마 : 드라마를 볼 때 나의 기분
다인신랑 : 외롭다.

감정카드 맞추기를 끝내고 민준엄마의 표정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읽을 수 있었다. 반면에 다른 두 명의 결혼여성이민자들은 부러움의 표정을 감추지 않고 드러냈으며 서로의 배우자에게 잘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4. 개방적 상호작용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며 공유하는 개입과 도전활동을 통해 부부 간 그리고 집단 간 신뢰감 속에서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적극적 자기표현이 증가하였다. 이는 집단 안에서 그리고 부부 간의 개방적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었다.

집단이 하나가 되어 손을 잡고 풍선치기를 하고 나자 그동안 서로 쌓아왔던 친밀감이 성취감과 결합할 수 있었으며,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서로 칭찬을 해서 부부가 같은 팀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모이게 하는 활동에서는 적극적 의사소통과 개방적 상호작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독수리'는 처음 아내를 칭찬할 때, 아이들의 좋은 엄마, 훌륭한 아내, 착한 아내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칭찬을 하였으나 '봉황'이 칭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제시하였고 남편 팀으로 가기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다른 남편들이 예를 들어가며 좀 더 적극적으로 칭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독수리: 당신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야.
봉 황: 아내보다는 여자가 더 좋은데.
독수리: 당신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독수리는 아내보다 여자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다고 고백하였다. 배우자 뿐 아니라 집단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장점과 칭찬을 듣자 모두들 긍정적 정서와 함께 적극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다.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느낀 솔직한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하였으며, 이는 타인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하였다.

부부가 서로에게 장미꽃을 바치는 의식을 갖고 회기를 마무리 하였는데 남편들은 모두가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사랑합니다. 존경 합니다"라고 서로에게 전달할 때는 진심이 담겨있음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다. 아내들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라면서 모두 쑥스러워하면서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얼굴표정에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특히 '봉황'은 베트남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바치는 예식이 중요하다면서 자주 받고 싶다는 적극적 자기표현을 했고, 이에 대해 '독수리'는 자주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다.

부부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참여자 대부분 어색해하고 자기표현이 절제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회기에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기표현이 많아졌다. 부부 간에 친밀해 보이지만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있었고, 서로에 대한 지지가 약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긴장되던 집단원들이 이제는 공감대 속에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타인을 인식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성취하도록 격려하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제한된 다문화 부부를 중심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부부 간 상호작용 촉진을 목표로 부부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례를 통한 분석과정을 거쳐 부부 간 상호작용 변화영역에 따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 부부는 '결혼이민자부부 행복만들기 프로젝트'에 신청한 4쌍으로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 아내와 한국인 남편들이다. 이들 중 사례분석은 전체 회기를 모두 참석한 3쌍의 부부만으로 이루어졌다.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부부 간 상호작용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의 변화요인에 따른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감과 예측 가능한 구조화된 공간적 만남을 통해 나타난 공간적 상호작용의 변화이다. 집단 초기는 공간적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치료놀이를 하게 되는 순간, 참여자들은 일상세계와는 또 다른 공간에 투입되게 된다(신현정, 2007). 본 연구에서도 치료자가 준비한 상호작용 놀이가 성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만남은 기존에 형성했던 부부이미지들을 전환시킬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부부간, 치료자와 부부집단 간에, 부부와 부부간에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만남은 서로 간의 심리적 만남의 과정을 겪으면서 치료자와 다른 부부들 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간적 만남을 통해 참여자들은 안전하고 신뢰로운 공간에서 자기인식 및 자기표현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타인인식으로의 확장을 이끌게 된다(선우현,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치료놀이 활동을 통한 친밀감의 경험이 부부 및 집단 간의 행동 및 표정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신체 접촉놀이는 부부간의 양육적 상호작용 촉진을 불러온다. 치료놀이에서의 접촉놀이는 애착을 불러일으키는데 신체접촉을 통해서 부부는 서로를 인식하고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김정혜, 2005). 몰입할 때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부부는 자신과 상대방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신의 존재감을 상대의 존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존재에 대한 몰입을 통해 느끼게 되는 감정들 역시 서로에게 전이되고 공유되어 비로소 나를 넘어서는 일체감을 서로 느끼게 된다(윤정희, 2007). 다시 말하면 이질감을 씻어내어 주는 통로로서 이질감이 동질감으로 바뀌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부부는 하나가 되어간다.

본 사례에 참여한 부부들은 부부 간 상호작용 평가에서 적응성이 낮은 부부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적 긴장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신체접촉을 통한 신체적 이완과 정서적 즐거움은 부부 간의 긍정적 정서교류로 이어질 수 있었다. 부부 간의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의 접촉과 수용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뿐 아니라 부부 간 긍정적인 피드백을 촉진시켰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셋째, 즐거운 개입활동을 통해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켜서 정서적 공감으로 확장되고 이는 공감적 상호작용을 이끌게 된다. 이러한 타인과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나를 넘어서서 타인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Jernberg & Booth 1999). 부부 간의 정서를 공유하고 상호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서로의 정서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서로간의 감정이입의 경험을 갖게 된다. 즉, 즐거움이라는 긍정적 정서 상태 안에서 공감적 인식과 반응이 경험되는 것이다. 본 부부집단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된 부부 친밀감은 즐거운 활동 속에서 부부간의 정서적 공감과 신뢰감을 이끌어내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공감적 정서표현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부부 간의 정서적 공감과 그에 따른 성취감은 이제 부부의 개방적 상호작용으로의 변화를 이끌게 되는데, 부부는 서로를 고치려하거나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는 부부가 서로 간의 부정적 인식의 틀을 바꾸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Kottman, 2003). 부부가 서로의 욕구나 바람에 대해 표현하고, 반응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애정이나 불만, 화, 분노 등의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로에게 공감하는 정서적 의사소통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부부와 결혼이주여성의 부적응문제, 더 나아가 부부갈등 및 이혼의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치료놀이를 활용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한 다문화부부의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다문화부부를 위한 상담접근 방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의 특성을 지향하는 효과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언어적 의사소통이 제한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신체접촉과 즐거움이 동반된 비언어적 상호작용 놀이는 부부관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정서교류를 통한 공감대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다 잘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다문화 부부가 안고 있는 문화적 인식의 차이나 생활방식의 차이 등을 극복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부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다문화 부부 뿐 아니라 결혼초기 부부의 심리·정서적 적응 및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예방 및 중재전략으로서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일 사례분석으로 그 효과성을 일반화하기에 충분치 않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사례연구 및 양적인 접근을 통한 추후 검증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양한 대상군에 확장 적용하여 그 효과성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공수연(2009).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적응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권정혜, 임승락(1998). 임상: 우울 증상이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17(2), 17-31.

권정혜, 채규만(2000). 부부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07-218.

김수정(2002). 집단 치료놀이를 통한 사회성 증진 보육 프로그램의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연수(2010). 가족탄력성 접근을 활용한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59-90.

김정혜(2005). 치료놀이를 활용한 모-자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모의회(2001).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훈련을 통한 부부적응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남숙(2005). 부부상담에서 집단상담의 치료적 활용: 문헌 고찰과 사례연구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97-1118.

선우현(2009). 사회불안 청소년-어머니의 상호작용증진을 위한 모-자녀 치료놀이 효과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7(2), 31-38.

소병숙(2009).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송정아(2006). 이마고 부부치료 이론의 타당성 연구: 배우자 선택과 이마고 형성이론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1), 261-274.

신현정(2007). 치료놀이 상호작용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이규삼(2000).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한일 국제가정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금연(2003). 국내국제결혼과 그 이해 -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 토론회 자료집. 안양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윤정희(2007). 저소득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증진을 위한 가족집단치료놀이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상희(2009). 모-아 치료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필리핀 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29-60.
이창숙, 유영주(1998). 부부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Baucom과 Epstein의 인지-행동적 모델에 기초하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41-71.
이현숙(1999). 인지행동적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채옥희, 홍달아기(2008).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 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지, 17(5), 891-902.
최혜경, 노지영, 박의순(1994).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71-18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 워크샵 자료집.
통계청(2009). 외국인과의 이혼추이.
통계청(2011). 인구동태조사(혼인, 이혼).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홍정애(2007). 가족치료놀이를 적용한 가족탄력성 증진프로그램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Baucom D. H., & Epstein, N.(1990).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Feld, B. C.(2003). Phase of Couples Group Therapy: A Consideration of Therapeutic Action. *Group, 27*(1)., 5019.
Gaylin, N. L.(1990). Family-centered therapy. In G. Lietaer, J. Rombauts, & R. Van Balen(Eds.), *Client-centered and experimental psychotherapy in the nineties*. 59-64. Belgium: Leuven University Press.
Gottman, J. M.(1994). *Why marriage succeed or fail*. Simon & Schuster Inc.
Jacobson, N. S., & Addis, M.. E.(1993). Research on couples and couple therapy: what do we know? where are we go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85-9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Jacobson, N. S., & Gurman, A. S.(1995).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The Guilford Press: New York.

Jernberg, A. M., & Booth, B.(1999). *Theraplay helping parents and children build better relationship through attachment - based play.*(2nd. ed.). San Francisco: Hossey-Bass.

Kottman, T.(2003). *Partners in play: an Adlerian approach to play therapy*(2nd ed.). Alexandria, VA: ACA Press.

Menjivar, C., & Salcido, S.(2002). Immigran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common experiences in different Countries. *Gender and Society, 16(6)*, 898-920.

Miller, S., Nunnally, E., & Wackman, D. B.(1971). Alive and aware Minneapoli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ogram, Inc.

Olson, D. H., & Killolin, E.(1984). *Clinical Rating Scale for Circumplex.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Rhee, S.(1997). Domestic violence in the Korean immigrant famil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4*(1), 63-78.

Wampler, K. S., & Sprenkle, D. H.(1980). The Minnesota Couples Communication program: a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345-35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A Study on Couple's Group Theraplay for Improving Interaction in Multicultural Couple

Sunwoo, Hyun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uple's group theraplay program on improving interaction on multi-cultural couple.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4 multi-cultural couples. Among them, 3 were arranged to experimental group, and connected data were analyzed by qualitative data analysis. The contents of the program consisted of belief system, organizational patter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process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quality of coupe's interaction. As a result, 8 sub-components are found in the experience of couple's group theraplay for multicultural couple. Through the process of grouping, for components are elicited: 1)interaction of environment, 2)interaction of Nurturing, 3)interaction of empathy, 4)interaction of open. During the process of the couple's group theraplay had meaningful consequence for the improvement participant's realistic expectation of feeling differently, starting establishment of self images and other's images. The factors of change were re-experiencing of objection, change of environment, and empathic interaction.

Key words : Multi-cultural Couple, Couple's Group Theraplay, Interaction, Nunverval Communicatio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